

부녀자 180명 일본술집에 팔아

“식당 등에 취업” 속여... 소개료 6억 챙긴 9명 구속

94.11.8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부녀자들에게 일본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거액의 소개료를 받고 1백80여명을 일본의 유흥업소와 윤락가 등에 팔아넘겨 6억여원을 챙긴 김양옥(53·무직·서울 성동구 구의동 251-6)씨 등 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홍의철(25·택시기사)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26일 이아무개(21)씨 등 2명에게 “일본 식당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 일본 입국비자를 받아준 뒤 취업알선을 미끼로 1천만원을 받은 뒤 일본

요코하마 소재 주점에 팔아넘겼다.

김씨 등은 또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ㄸ유학원을 차려놓고 어학연수를 준비중이던 하아무개(22·여)씨를 일본 유흥가에 불법 취업시키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부녀자 1백88명을 한사람당 1백50만원에서 1천만원씩 받고 팔아넘겨 모두 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상우 기자